

<데일리 EBS 세계지리 6일차 정답 및 해설>

1번> 정답: 5번

해설: 라틴 아메리카는 다른 대륙에 비해 인종(민족) 구성이 다양한데, 이는 유럽인의 진출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별로도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유럽계 인종의 비중이 높는데, 특히 브라질은 기후적으로 인간 거주에 유리한 남동부 해안 지역에 유럽계가 집중 분포한다. 반면, 볼리비아와 페루 등 안데스 고산 지역과 열대 우림 기후의 아마존 밀림 지역에는 원주민이 집중 거주하고 있다. 과거에 노예 무역으로 강제 이주된 아프리카계는 플랜테이션 농장이 많은 브라질 동부 해안과 카리브해 지역에 많은 편이다. 멕시코는 인구 구성에서 혼혈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A는 유럽계, B는 혼혈, C는 원주민, D는 아프리카계이다.

오답 CHECK)

1번> A는 유럽계로 잉카, 아스텍아 문명을 발달시킨 이들은 원주민이다.

2번> B는 혼혈로 노동력 확보를 위해 강제 이주된 인종은 아프리카계이다.

3번> C는 원주민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낮은 지위에 머물고 있다.

4번> D는 아프리카계로 해발 고도가 높은 고산지역에서 거주하는 인종은 원주민이다.

2번> 정답: 5번

해설: 지도에 표시된 A는 영국, B는 이탈리아, C는 터키이다. 선진국은 산업의 고도화가 이루어져 대체로 3차 산업의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1차 산업의 비중이 낮습니다. 이와 반대로 개발도상국은 1차 산업의 비중이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영국은 세계 최상위 도시인 런던을 중심으로 세계 금융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 등 생산자 서비스업이 발달하여, 3차 산업의 비중이 전체 산업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다)가 영국(A)의 산업구조 그래프입니다. 터키는 개발도상국으로 지중해와 흑해연안을 중심으로 1차 산업이 발달하였습니다. 따라서 1차 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가)가 터키(C)의 산업 구조 그래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는 고대 유적지와 지중해성 기후를 이용한 관광 산업이 발달하였으며, 북부 지역에 제조업이 집중되어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영국보다 높다. 따라서, (나)가 이탈리아(B)의 산업 구조 그래프입니다.